



ISSUE BRIEFING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이슈브리핑
2022. 05. 10 vol.263

연구진
이성재_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한국환_지역개발연구부 전문연구원



CONTENTS

요약

I. 서론

II.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

III. 인구정책 시사점

데이터 분석 개요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세대관련연간자료 > 2010년, 2020년 기준, 통계청MDIS, (다운로드, 20220317)

* 본 분석에서는 시도내 이동(Intra-Province Migration) 데이터는 제외한 시도간 이동(Inter-Province Migration) 데이터로 분석

* 전입 · 전출 지역 및 사유는 인구 기준, 전입 · 전출 연령은 세대주 기준

요약

○ '20년 국내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인구 감소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 중임

○ 지자체마다 인구이동 지역, 사유, 연령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부합한 투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구이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함

전주시 순유출 2,256명, 전출 23,209명 중 수도권(55.7%)과 충청권(19.6%)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6.7%), 전출 연령대는 20대(41.0%)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1,954명→2,256명) 증가, 수도권과 충청권 전출비율 증가

군산시 순유출 1,926명, 전출 11,781명 중 수도권(49.1%)과 충청권(25.4%)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7.3%), 전출 연령대는 20대(30.6%)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입에서 '20년 순유출로 악화(+1,473명 → -1,926명),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익산시 순유출 2,518명, 전출 11,818명 중 수도권(51.8%)과 충청권(25.7%)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4.7%), 전출 연령대는 20대(40.7%)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1,575명→2,518명) 증가,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정읍시 순유출 676명, 전출 4,357명 중 수도권(45.2%)과 광주전남권(25.7%)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2.0%), 전출 연령대는 20대(38.8%)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344명→676명) 증가,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광주전남권 전출 비율 증가

남원시 순유출 21명, 전출 3,263명 중 수도권(51.8%)과 광주전남권(27.4%)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2.0%), 전출 연령대는 20대(38.8%)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97명→21명) 감소,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광주전남권 전출 비율 증가

김제시 순유출 250명, 전출 2,485명 중 수도권(55.9%)과 충청권(20.2%)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1.2%), 전출 연령대는 20대(37.4%)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221명→250명) 소폭 증가,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완주군 순유출 88명, 전출 3,258명 중 수도권(50.0%)과 충청권(23.4%)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1.8%), 전출 연령대는 20대(32.5%)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입에서 '20년 순유출로 악화(+181명 → -88명),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진안군 순유입 32명, 전입 908명 중 수도권(50.9%)과 충청권(24.1%) 비율이 높고, 전입사유는 가족(36.8%), 전입 연령대는 50대(28.7%)가 가장 높음

* 50대 전입 사유는 직업, 주택 순

- '10년 대비 순유출에서 '20년 순유입으로 전환(-70명 → +32명), 수도권 전입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과 영남권 전입 비율 증가

무주군 순유입 78명, 전입 1,356명 중 수도권(38.1%)과 충청권(36.0%) 비율이 높고, 전입사유는 가족(31.1%), 전입 연령대는 50대(31.9%)가 가장 높음

* 50대 전입 사유는 직업, 자연환경 순

- '10년 대비 순유출에서 '20년 순유입으로 전환(-87명 → +78명), 수도권 전입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과 영남권 전입 비율 증가

장수군 순유입 15명, 전입 839명 중 수도권(48.7%)과 영남권(16.3%) 비율이 높고, 전입사유는 직업(28.6%), 전입 연령대는 50대(24.7%)가 가장 높음

* 50대 전입 사유는 주택, 직업 순

- '10년 대비 순유출에서 '20년 순유입으로 전환(-23명 → +15명), 수도권 전입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과 영남권 전입 비율 증가

임실군 순유출 195명, 전출 1,169명 중 수도권(55.0%)과 충청권(16.1%)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42.4%), 전출 연령대는 30대(30.8%)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 증가(36명 → 195명),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영남권 전출 비율 증가

순창군 순유출 173명, 전출 1,622명 중 광주전남권(41.9%)과 수도권(39.8%)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가족(33.5%), 전출 연령대는 20대(31.0%)가 가장 높음

* 20대 전출 사유는 직업, 주택 순

- '10년 대비 순유출 증가(17명 → 173명),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과 영남권 전출 비율 증가

고창군 순유출 179명, 전출 3,015명 중 수도권(44.2%)과 광주전남권(38.1%)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33.7%), 전출 연령대는 20대(32.0%)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입에서 '20년 순유출로 악화(+380명 → -179명),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광주전남권과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부안군 순유출 337명, 전출 2,164명 중 수도권(53.7%)과 충청권(16.7%) 비율이 높고, 전출사유는 직업(39.9%), 전출 연령대는 20대(36.3%)가 가장 높음

- '10년 대비 순유출 증가(67명 → 337명), 수도권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충청권 전출 비율 증가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 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전체의 82.3%, 충청권으로의 순유출 전체의 67.62%를 차지함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 인구의 전출 최소화 필요
-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감소(전입-전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연감소(출생-사망) 주 요인인 출산율 제고에 집중
-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정읍시는 광주전남권, 장수군, 무주군은 영남권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 중요
- 최근 들어 완주·진안·무주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배후거점을 조성해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관계인구 유치를 통한 인구활력 필요

(단위: 명)

구분	순이동			증감 지역(2010년 대비 2020년)
	2010년	2020년	증감	
전 북	-2,448	-8,494	-6,046	(+) 광주 353, 전남 333, 경북 262 (-) 서울 2,307 경기 2,007, 인천 988
전주시	-1,945	-2,256	-311	(+) 전남 401, 광주 310, 경북 146 (-) 서울 596, 경기 432, 세종 207
군산시	1,473	-1,926	-3,399	(-) 서울 682, 인천 641, 울산 606, 경기 552, 전남 293
익산시	-1,575	-2,518	-943	(+) 광주 108, 경북 60, 충북 40 (-) 경기 424, 인천 195, 서울 183
정읍시	-344	-676	-332	(+) 광주 98, 경남 44, 충남 33 (-) 경기 251, 서울 215, 인천 44
남원시	-97	-21	76	(+) 전남 115, 경남 82, 광주 64 (-) 서울 90, 경기 85, 대전 50
김제시	-221	-250	-29	(+) 경남 24, 대구 19, 광주 18 (-) 서울 46, 충북 21, 세종 21
완주군	181	-88	-269	(+) 충북 41, 충남 38, 부산 21 (-) 경남 161, 경기 88, 서울 60
진안군	-70	32	102	(+) 전남 30, 서울 23, 충남 15 (-) 경남 13, 인천 9, 경기 3
무주군	-87	78	165	(+) 경기 55, 경북 53, 대전 49 (-) 서울 37, 충남 36, 세종 10
장수군	-23	15	38	(+) 전남 22, 경북 13, 경남 12 (-) 서울 19, 충남 16, 세종 10
임실군	-36	-195	-159	(+) 인천 13, 부산 13, 울산 10 (-) 경기 47, 광주 41, 서울 37
순창군	-17	-173	-156	(+) 광주 46, 경북 10, 대구 9 (-) 서울 68, 경기 41, 인천 33
고창군	380	-179	-559	(+) 울산 10, 충북 8 (-) 서울 173, 경기 132, 광주 100
부안군	-67	-337	-270	(+) 경기 12, 경남 11, 전남 9 (-) 서울 124, 광주 67, 인천 34

I. 서론

1. 3대 인구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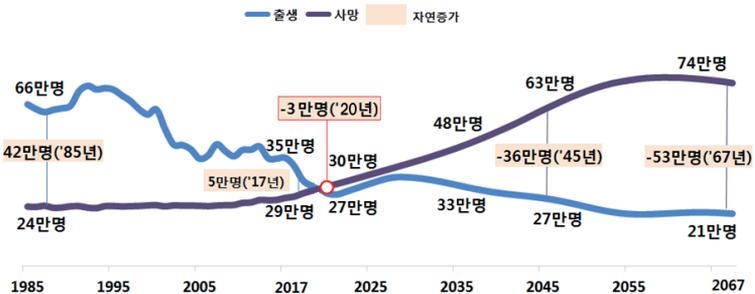
- 20년 3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최근의 인구변동요인 추세 지속시 향후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인구비율 : '16년49.5%→'17년49.6%→'18년49.8%→'19년50.0%→'20년50.2%

- 20년 사망자수(307,764명)가 출생자수(275,815명)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인구 오너스의 부정적 효과 본격화

* 통계청(19년)은 2045년 자연감소 규모를 36만명(20년의 10배)으로 추산

〈그림1〉 출생·사망·자연증가 (1985~2067:중위)



* 자료 :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2019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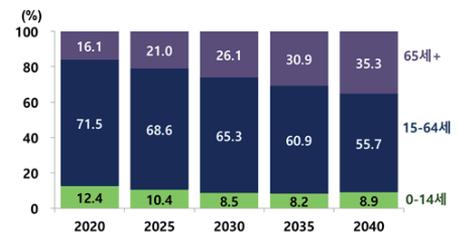
- '20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였으며, 향후 약 714만명 규모의 신규 잠재수요 발생

2. 장래인구 전망¹⁾

-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전망은 '20년 5,184만명에서 '40년 5,019만명으로 감소

-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년 3,583만명에서 향후 '30년 3,221만명, '40년 2,676만명 수준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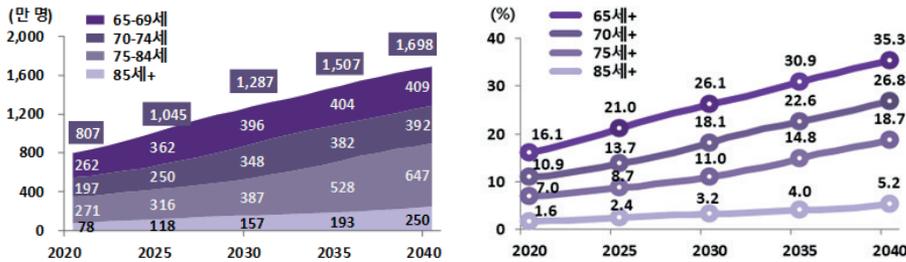
〈그림2〉 장래 인구 전망
〈그림3〉 장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22.4.14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5년 1,000만명을 넘고, '35년 1,500만명을 넘어서고,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년 16.1%에서 '25년 20%를 넘고, '35년 30%를 넘어설 전망



〈그림4〉 내국인 고령인구 전망

3.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법체계 정비) 「균특법」 개정('20.11.) 및 「균특법 시행령」 개정('21.6.9 시행)
 -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및 절차, 지원시책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추진체계 구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시책 발굴을 위해 '부처 TF' 구성('21.2.25)
 - *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협의체(행안부 등 10개 부처 참여)
-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법적기준 등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수 개발 및 의견수렴, 균형위 심의 등을 거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 * 인구감소지수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
- (인구감소대응기금 신설)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 증진을 위해 '22년 정부 본예산 일반회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편성
 - 기금은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재원이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활용하는 자주재원
 - * 지자체는 지역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투자 계획 작성·제출→평가·협의→투자계획 수정·제출→배분액 확정·배분)

-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응한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중
- 지역의 인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인구 이동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 및 분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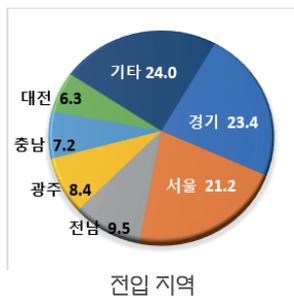
II.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

1. 전주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1,992	경기(6,117), 서울(5,657), 전남(1,699) 수도권 12,767, 광주전남권 3,258	20,953	경기(4,895), 서울(4,442), 전남(1,995) 수도권 10,256, 충청권 3,870
사유	21,992	기타(8,754), 가족(4,828), 주택(3,796)	20,953	직업(7,396), 가족(6,130), 주택(3,001)
연령	12,800	30대(4,705), 40대(3,370), 20대(2,391)	12,700	20대(3,487), 30대(3,334), 40대(2,781)
심층	30대 사유/지역 : 기타, 직업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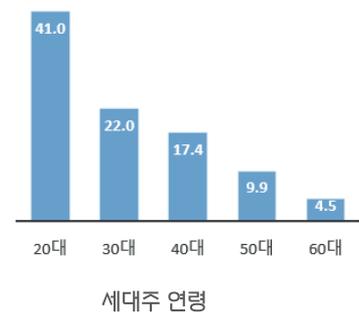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3,937	경기(6,785), 서울(6,562), 광주(1,658) 수도권 14,434, 충청권 3,579	23,209	경기(5,995), 서울(59), 충남(1,740) 수도권 12,936, 충청권 4,543
사유	23,937	직업(7,804), 기타(5,210), 가족(5,048)	23,209	직업(10,848), 가족(5,190), 주택(2,727)
연령	16,094	20대(4,975), 30대(4,889), 40대(3,548)	15,633	20대(6,406), 30대(3,436), 40대(2,713)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1,945명 → ('20년) -2,256명 (-311명, 순유출 심화)
[지역] (+) 전남 401명, 광주 310명, 경북 146명, (-) 서울 596명, 경기 432명, 세종 20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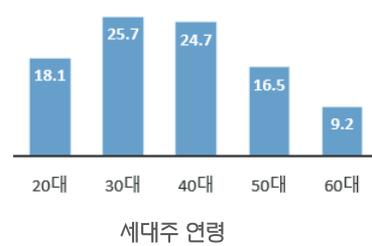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2. 군산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3,104	경기(3,095), 서울(2,464), 충남(1,823) 수도권 6,535, 충청권 2,734	9,855	경기(2,126), 충남(1,883), 서울(1,485) 수도권 4,267, 충청권 2,838
사유	13,104	직업(5,136), 가족(4,371), 주택(1,797)	9,855	직업(3,766), 가족(2,896), 주택(1,350)
연령	8,000	30대(2,876), 40대(1,994), 20대(1,567)	5,878	30대(1,510), 40대(1,451), 20대(1,063)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3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충남,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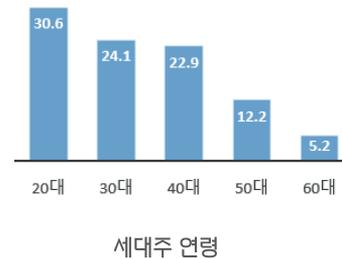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1,631	경기(3,124), 충남(2,394), 서울(1,662) 수도권 6,174, 충청권 2,596	11,781	경기(2,707), 서울(2,097), 충남(1,757) 수도권 5,781, 충청권 2,970
사유	11,631	직업(3,885), 가족(2,557), 기타(2,532)	11,781	직업(5,577), 가족(2,648), 주택(1,581)
연령	7,572	30대(2,487), 20대(2,227), 40대(1,561)	8,058	20대(2,466), 30대(1,940), 40대(1,848)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1,473명 → ('20년) -1,926명 (-3,399명, 순유입→순유출)
[지역] (-) 서울 682명, 인천 641명, 울산 606명, 경기 552명, 전남 293명

3. 익산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1,286	경기(3,162), 서울(2,349), 충남(1,361) 수도권 6,152, 충청권 2,396	9,300	경기(2,119), 서울(1,746), 충남(1,069) 수도권 4,371, 충청권 2,238
사유	11,286	가족(3,421), 기타(2,641), 직업(2,616)	9,300	직업(3,245), 가족(2,788), 교육(1,192)
연령	6,165	30대(1,990), 40대(1,325), 20대(1,321)	5,456	20대(1,689), 30대(1,017), 40대(935)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경기,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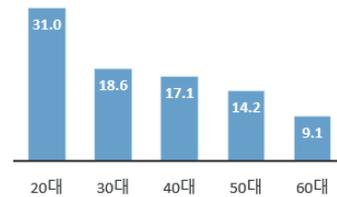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입 지역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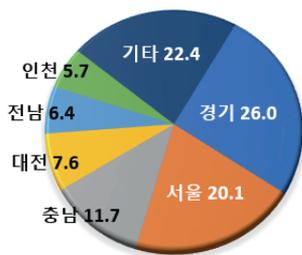


세대주 연령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2,861	경기(3,696), 서울(2,792), 충남(1,542) 수도권 7,102, 충청권 2,926	11,818	경기(3,077), 서울(2,372), 충남(1,378) 수도권 6,123, 충청권 3,036
사유	12,861	직업(4,127), 기타(2,923), 가족(2,888)	11,818	직업(5,278), 가족(3,115), 주택(1,421)
연령	8,553	20대(2,681), 30대(2,576), 40대(1,760)	7,524	20대(3,060), 30대(1,644), 40대(1,126)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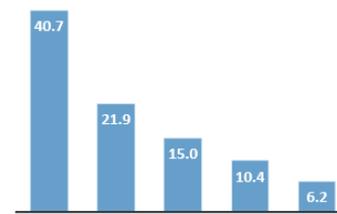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출 지역



전출 사유



세대주 연령

□ 순이동

[증감] ('10년) -1,575명 → ('20년) -2,518명 (-943명, 순유출 심화)
[지역] (+) 광주 108명, 경북 60명, 충북 40명, (-) 경기 424명, 인천 195명, 서울 1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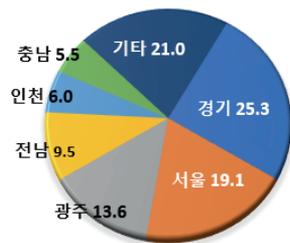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4. 정읍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5,394	경기(1,651), 서울(1,359), 광주(550) 수도권 3,369, 광주전남권 969	3,681	경기(931), 서울(702), 광주(502) 수도권 1,853, 광주전남권 853
사유	5,394	가족(1,664), 기타(1,430), 직업(1,037)	3,681	가족(1,122), 직업(1,082), 주택(699)
연령	2,923	30대(859), 40대(756), 50대(424)	2,135	40대(462), 50대(453), 30대(411)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4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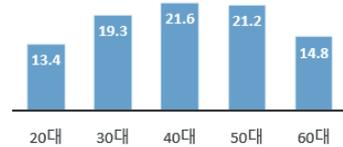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입 지역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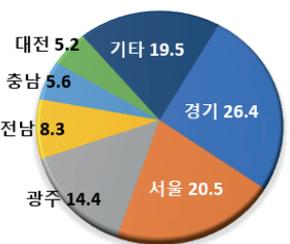


세대주 연령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5,738	경기(1,621), 서울(1,335), 광주(773) 수도권 3,261, 광주전남권 1,211	4,357	경기(1,152), 서울(893), 광주(627) 수도권 2,255, 광주전남권 988
사유	5,738	직업(1,559), 가족(1,426), 기타(1,330)	4,357	직업(1,804), 가족(1,125), 주택(530)
연령	3,563	20대(1,126), 30대(1,008), 40대(754)	2,842	20대(1,135), 30대(510), 40대(458)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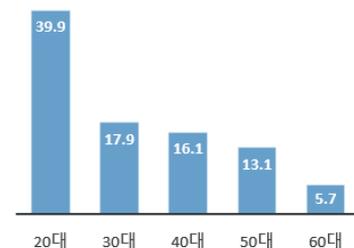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출 지역



전출 사유



세대주 연령

□ 순이동

[증감] ('10년) -344명 → ('20년) -676명 (-332명, 순유출 심화)
 [지역] (+) 광주 98명, 경남 44명, 충남 33명, (-) 경기 251명, 서울 215명, 인천 44명

5. 남원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927	경기(940), 서울(826), 전남(591) 수도권 1,948, 광주전남권 963	3,242	경기(681), 전남(593), 서울(517) 수도권 1,352, 광주전남권 963
사유	3,927	가족(1,362), 직업(965), 주택(690)	3,242	가족(1,076), 직업(952), 주택(514)
연령	2,154	30대(658), 40대(563), 50대(324)	1,894	50대(456), 40대(407), 30대(321)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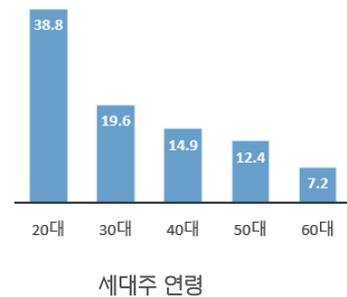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4,024	경기(882), 서울(853), 전남(596) 수도권 1,886, 광주전남권 1,074	3,263	경기(708), 서울(634), 전남(483) 수도권 1,476, 광주전남권 895
사유	4,024	직업(1,105), 가족(1,004), 기타(849)	3,263	직업(1,371), 가족(801), 주택(416)
연령	2,491	20대(856), 30대(669), 40대(495)	2,138	20대(830), 30대(420), 40대(319)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97명 → ('20년) -21명 (76명, 순유출 완화)
[지역] (+) 전남 115명, 경남 82명, 광주 64명, (-) 서울 90명, 경기 85명, 대전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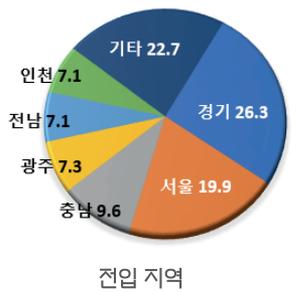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6. 김제시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286	경기(1,049), 서울(876), 충남(225) 수도권 2,130, 충청권 453	2,235	경기(588), 서울(444), 충남(215) 수도권 1,191, 충청권 412
사유	3,286	가족(1,031), 직업(785), 기타(661)	2,235	가족(696), 직업(669), 주택(360)
연령	1,759	30대(428), 40대(423), 50대(327)	1,316	50대(456), 40대(300), 30대(223)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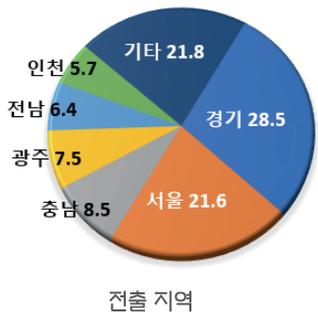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507	경기(1,159), 서울(923), 충남(230) 수도권 2,260, 충청권 499	2,485	경기(709), 서울(537), 충남(211) 수도권 1,388, 충청권 502
사유	3,507	직업(1,006), 가족(908), 기타(800)	2,485	직업(1,025), 가족(707), 주택(299)
연령	2,167	20대(680), 30대(557), 40대(452)	1,549	20대(580), 30대(294), 40대(269)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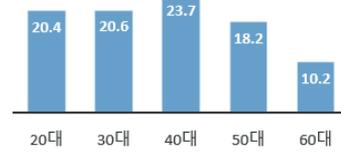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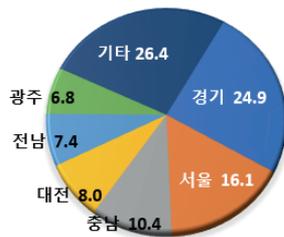
[증감] ('10년) -221명 → ('20년) -250명 (-29명, 순유출 지속)
 [지역] (+) 경남 24명, 대구 19명, 광주 18명, (-) 서울 46명, 충북 21명, 세종 21명

7. 완주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688	경기(1,007), 서울(708), 대전(281) 수도권 1,933, 충청권 657	3,170	경기(789), 서울(509), 충남(331) 수도권 1,444, 충청권 784
사유	3,688	직업(1,194), 가족(1,042), 주택(540)	3,170	직업(1,175), 가족(889), 주택(518)
연령	2,284	30대(746), 40대(636), 20대(327)	2,045	40대(485), 30대(421), 20대(417)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4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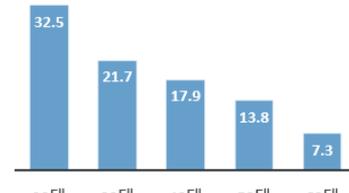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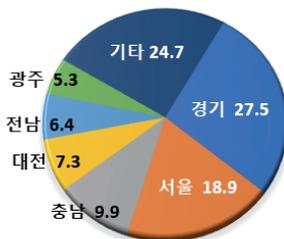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507	경기(1,025), 서울(755), 충남(319) 수도권 1,937, 충청권 678	3,258	경기(895), 서울(616), 충남(323) 수도권 1,629, 충청권 764
사유	3,507	직업(1,088), 가족(888), 기타(766)	3,258	직업(1,361), 가족(908), 주택(462)
연령	2,208	30대(751), 20대(569), 40대(483)	2,072	20대(674), 30대(449), 40대(370)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181명 → ('20년) -88명 (-269명, 순유입→순유출)
[지역] (+) 충북 41명, 충남 38명, 부산 21명, (-) 경남 161명, 경기 88명, 서울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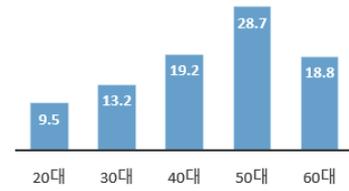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8. 진안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200	경기(373), 서울(259), 대전(125) 수도권 734, 충청권 253	908	경기(221), 서울(175), 충남(90) 수도권 462, 충청권 219
사유	1,200	기타(457), 가족(330), 직업(223)	908	가족(334), 직업(174), 주택(161)
연령	630	40대(170), 30대(138), 50대(125)	516	50대(148), 40대(99), 60대(97)
심층	4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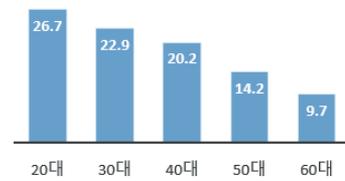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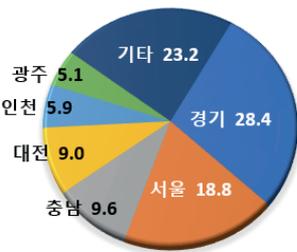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270	경기(398), 대전(272), 서울(127) 수도권 749, 충청권 270	876	경기(249), 서울(165), 충남(84) 수도권 466, 충청권 203
사유	1,270	가족(353), 기타(336), 직업(288)	876	직업(311), 가족(281), 주택(136)
연령	722	20대(212), 30대(180), 40대(146)	506	20대(135), 30대(116), 40대(102)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70명 → ('20년) 32명 (102명, 순유출-순유입)
 [지역] (+) 전남 30명, 서울 23명, 충남 15명, (-) 경남 13명, 인천 9명, 경기 3명

9. 무주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961	대전(499), 경기(379), 서울(313) 수도권 783, 충청권 733	1,356	대전(311), 경기(264), 서울(189) 수도권 517, 충청권 488
사유	1,961	기타(1,021), 가족(415), 직업(275)	1,356	가족(422), 직업(416), 자연(210)
연령	1,061	40대(272), 30대(270), 50대(187)	835	50대(266), 40대(178), 60대(135)
심층	40대 사유/지역 : 기타, 직업 / 대전,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자연환경 / 경기,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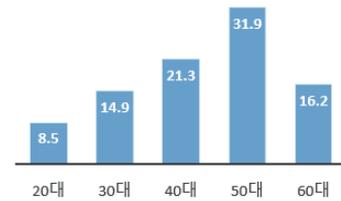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입 지역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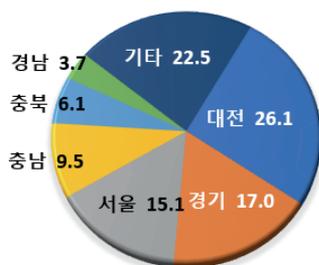


세대주 연령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048	대전(571), 경기(387), 서울(280) 충청권 818, 수도권 742	1,278	대전(334), 경기(217), 서울(193) 충청권 568, 수도권 453
사유	2,048	가족(663), 기타(464), 직업(432)	1,278	직업(493), 가족(377), 주택(198)
연령	1,102	20대(307), 30대(301), 40대(244)	768	20대(262), 50대(139), 40대(126)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대전,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대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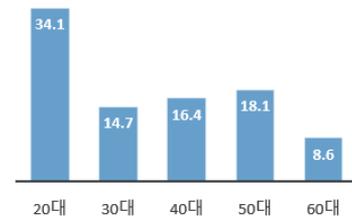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출 지역



전출 사유



세대주 연령

□ 순이동

[증감] ('10년) -87명 → ('20년) 78명 (165명, 순유출-순유입)
[지역] (+) 경기 55명, 경북 53명, 대전 49명, (-) 서울 37명, 충남 36명, 세종 10명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10. 장수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053	경기(310), 서울(273), 대전(63) 수도권 631, 영남권 154	839	경기(211), 서울(163), 대전(66) 수도권 409, 영남권 137
사유	1,053	기타(369), 가족(324), 직업(162)	839	직업(240), 가족(236), 주택(118)
연령	551	40대(127), 30대(125), 50대(121)	558	50대(138), 40대(120), 60대(105)
심층	40대 사유/지역 : 기타, 직업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주택, 직업 / 경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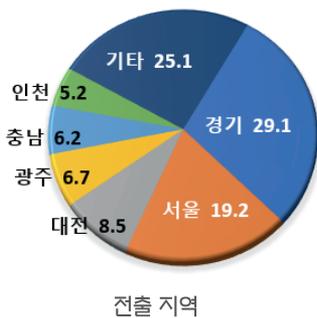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076	경기(331), 서울(249), 광주(72) 수도권 645, 충청권 136	824	경기(240), 서울(158), 대전(70) 수도권 441, 충청권 155
사유	1,076	가족(298), 직업(279), 기타(239)	824	직업(272), 가족(260), 주택(118)
연령	603	20대(231), 30대(117), 40대(103)	494	20대(161), 30대(90), 50대(78)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23명 → ('20년) 15명 (38명, 순유출→순유입)
 [지역] (+) 전남 22명, 경북 13명, 경남 12명, (-) 서울 19명, 충남 16명, 세종 10명

11. 임실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056	경기(314), 서울(260), 충남(84) 수도권 638, 충청권 155	974	경기(279), 서울(224), 강원(75) 수도권 569, 충청권 127
사유	1,056	가족(347), 직업(225), 기타(212)	974	직업(365), 가족(264), 주택(111)
연령	539	30대(136), 40대(118), 50대(107)	654	50대(159), 30대(131), 40대(112)
심층	3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자연환경 / 경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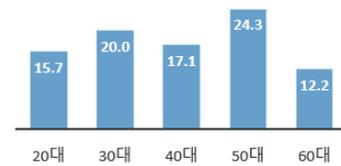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입 지역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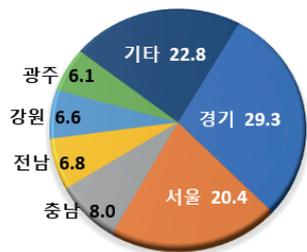


세대주 연령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1,092	경기(330), 서울(238), 충남(98) 수도권 641, 충청권 181	1,169	경기(342), 서울(239), 충남(93) 수도권 643, 충청권 188
사유	1,092	가족(289), 직업(269), 기타(244)	1,169	직업(496), 가족(362), 주택(130)
연령	641	20대(193), 30대(175), 40대(143)	731	30대(225), 20대(194), 40대(127)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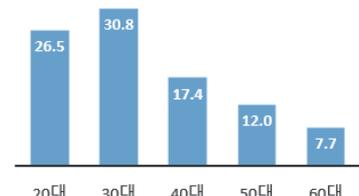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전출 지역



전출 사유



세대주 연령

□ 순이동

[증감] ('10년) -36명 → ('20년) -195명 (-159명, 순유출 심화)
[지역] (+) 인천 13명, 부산 13명, 울산 10명, (-) 경기 47명, 광주 41명, 서울 37명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12. 순창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080	광주(679), 경기(410), 서울(395) 광주전남권 920, 수도권 913	1,449	광주(475), 경기(286), 서울(195) 광주전남권 664, 수도권 555
사유	2,080	가족(811), 기타(401), 직업(376)	1,449	가족(490), 직업(383), 기타(179)
연령	951	40대(248), 30대(213), 50대(184)	816	50대(216), 40대(179), 60대(148)
심층	40대 사유/지역 : 기타, 직업 / 광주,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광주,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097	광주(741), 서울(409), 경기(374) 광주전남권 972, 수도권 862	1,622	광주(491), 경기(291), 서울(277) 광주전남권 680, 수도권 646
사유	2,097	가족(658), 기타(546), 직업(394)	1,622	가족(544), 직업(511), 주택(259)
연령	1,091	20대(351), 30대(267), 40대(229)	933	20대(289), 30대(208), 40대(138)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광주,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광주, 서울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17명 → ('20년) -173명 (-156명, 순유출 심화)
[지역] (+) 광주 46명, 경북 10명, 대구 9명, (-) 서울 68명, 경기 41명, 인천 33명

13. 고창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4,280	경기(1,139), 서울(1,082), 광주(709) 수도권 2,429, 광주전남권 1,220	2,836	광주(720), 경기(645), 서울(469) 수도권 1,255, 광주전남권 1,137
사유	4,280	기타(1,494), 가족(1,250), 직업(748)	2,836	가족(818), 직업(704), 교육(438)
연령	2,197	40대(632), 30대(488), 50대(365)	1,750	40대(510), 50대(380), 30대(283)
심층	40대 사유/지역 : 기타, 직업 / 경기, 서울		40대 사유/지역 : 교육, 직업 / 광주,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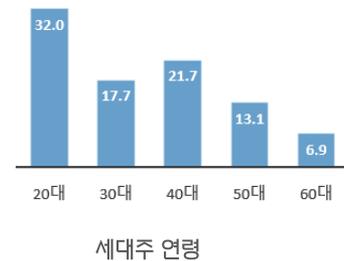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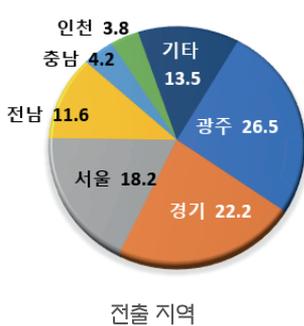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3,900	경기(1,030), 서울(990), 광주(687) 수도권 2,182, 광주전남권 1,132	3,015	광주(798), 경기(668), 서울(550) 수도권 1,333, 광주전남권 1,149
사유	3,900	가족(1,114), 기타(964), 직업(813)	3,015	직업(1,017), 가족(857), 주택(485)
연령	2,205	20대(741), 30대(486), 40대(432)	1,838	20대(589), 40대(399), 30대(325)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서울, 경기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광주, 서울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380명 → ('20년) -179명 (-559명, 순유입-순유출)
[지역] (+) 울산 10명, 충북 8명, (-) 서울 173명, 경기 132명, 광주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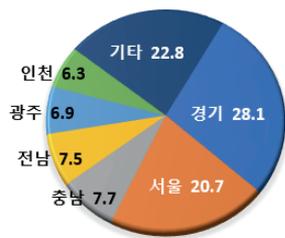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14. 부안군

□ 전입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601	경기(813), 서울(748), 인천(184) 수도권 1,745, 광주전남권 331	1,827	경기(514), 서울(378), 충남(140) 수도권 1,007, 충청권 275
사유	2,601	가족(922), 직업(556), 주택(498)	1,827	직업(612), 가족(523), 주택(263)
연령	1,455	40대(389), 30대(363), 50대(239)	1,170	50대(294), 60대(236), 40대(233)
심층	4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50대 사유/지역 : 직업, 주택 / 경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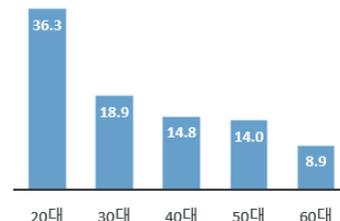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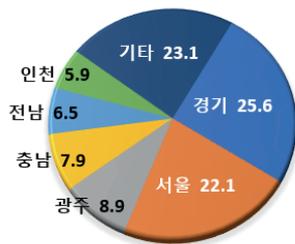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전출

구분	합계	2010년	합계	2020년
지역	2,668	경기(866), 서울(725), 광주(178) 수도권 1,754, 광주전남권 343	2,164	경기(555), 서울(479), 광주(193) 수도권 1,162, 충청권 362
사유	2,668	직업(732), 기타(674), 가족(668)	2,164	직업(864), 가족(632), 주택(263)
연령	1,611	20대(526), 30대(406), 40대(332)	1,331	20대(483), 30대(251), 40대(197)
심층	20대 사유/지역 : 직업, 기타 / 경기, 서울		20대 사유/지역 : 직업, 교육 / 서울, 경기	

* 순위기준, 지역 및 사유는 명, 연령은 세대



□ 순이동

[증감] ('10년) -67명 → ('20년) -337명 (-270명, 순유출 심화)
[지역] (+) 경기 12명, 경남 11명, 전남 9명, (-) 서울 124명, 광주 67명, 인천 34명

Ⅲ. 인구정책 시사점

① 인구이동 지역

- 20년 기준 전북으로의 전입 인구는 62,625명, 전북 전출 인구는 71,119명으로 순이동은 -8,494명이며, '10년 대비 수도권은 3.8배, 충청권은 1.7배 증가
 -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전북의 인구이동은 '10년 대비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감소(-8,237명) 했지만,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의 전입 감소(-14,283명) 규모가 더욱 많아 인구 감소 지속
- 순유입(순이동 +) 지역은 '10년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20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전환되어 11개 시군에서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전체(7,224명)의 82.3%, 충청권으로의 순유출 전체(1,687명)의 67.62% 차지
 - '20년 순유입(순이동 +) 권역은 영남권(677명), 광주전남권(425명), 순유출(순이동 -) 권역은 수도권(-7,224명), 충청권(-2,262명)이며, '10년 대비 광주전남권은 순이동 686명 증가,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의 순이동은 각각 267명, 966명, 5,302명 감소했으며,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심화

② 인구이동 사유

- 20년 기준 전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출 요인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이며, 전입 요인은 전주·군산·익산·완주 등을 중심으로 직업 비율이 높고, 기타 시군은 가족이 높거나 가족과 직업의 비율이 유사
 - 14개 시군 대부분 지역에서 전출 사유로 직업이 높으나, 전입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에서 가족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교육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창군이며, 자연환경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주군, 장수군 등으로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 20년 순이동 중 자연환경, 가족, 기타 사유로 총 3,872명이 순유입 되었으며, 직업(10,049명), 교육(1,804명), 주거환경(375명), 주택(138명) 사유로 12,366명이 순유출
 - 직업으로 인한 순유출 10,049명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율은 각각 70.9%, 25.1%이며, 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72.6%를 차지

③ 인구이동 연령대(세대주)

- 20년 기준 전북의 순유출 연령대별 분포는 20대(-9,341명), 30대(-1,810명), 10대(-736명) 순이며, 순유입의 연령대별 분포는 50대(1,205명), 60대(1,132명), 70대(574명) 순
 - 연령대별 전입은 40대(21.9%), 30대(21.8%), 20대(21.0%) 순, 전출은 20대(37.2%), 30대(21.6%), 40대(17.5%) 순이며, '10년 대비 전입 연령대는 높아지고 전출 연령대는 낮아지는 특성
- 전북에서 전출 수가 가장 많은 20대의 전출사유는 직업(64.8%), 교육(17.2%) 순이며, 전출지역 순위는 서울(31.6%), 경기(21.0%)와 일부 대전, 광주 등 인근 광역시
- 도내 14개 시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대의 전출이 가장 많았으나, 전입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전주·익산의 경우 20~30대, 군산·완주는 30~40대, 기타 지역에서는 40~50대

④ 인구정책 방향

-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민구의 전출 최소화 필요
-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감소(전입-전출) 대응 보다는 자연감소(출생-사망) 주 요인인 출산율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단위 중심의 전원생활을 유도하는 시책 추진
-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정읍시는 광주전남권, 장수군, 무주군은 영남권 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 추진
- 최근들어 완주·진안·무주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배후거점을 조성해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관계인구 유치를 통한 인구활력 도모
-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특성 외에도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특성과 사회적 인구특성을 연계한 종합적 분석 및 대응 필요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2. 05. 10 vol.263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